

10  
2021

# 재외동포의



특집 \_ 한민족 공동체 번영 논의하는 '2021 세계한인회장대회' 개막  
기획 \_ 온실가스 감축목표 40%로 상향... '2050 탄소중립' 향해간다  
화제 \_ 문재인 대통령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종전선언 제안... 새 질서 출발점"



# ‘세계 한인의 날’ 문재인 대통령 축하

## 세계 각국의 한인회장 여러분,

‘제15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는 만날수록 힘이 나는 민족입니다. 지난해 코로나 때문에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을 치르지 못한 채 서로의 자리에서 그리움을 달래야 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먼 길을 와 주신 동포 여러분께 뜨거운 환영 인사를 드립니다.

대면으로 참석하지 못한 아쉬움 속에서 온라인으로 더욱 진한 동포애를 보내 주고 계신 재외동포 여러분께도 안부 인사를 전합니다.

우리 겨레는 세계 어디서든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는 별입니다. 서로 믿고 의지하고 그리워하며 희망과 회복의 힘을 키워왔습니다.

코로나의 대유행 속에서도 하나가 되어 더 크게 빛난 재외동포와 한인회장단, 유공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 동포 여러분,

오늘 기념식에 ‘쿠바 이주 100주년’을 맞아 차세대 동포 임대한 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임대한 님의 증조부 임찬택 선생은 쿠바 한인 1세이자 독립운동가였고, 후손들이 그 뜻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재외동포 1세대 선조들은 간도와 연해주, 중앙아시아, 하와이, 멕시코, 쿠바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에서 당당한 도전과 성취의 역사를 썼습니다.

동포들은 고된 타향생활 속에서도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광복군을 후원했습니다. ‘힘이 있으면 힘을, 돈이 있으면 돈을 내자’는 정신으로 모금 운동을 벌였습니다. 온 민족이 함께 힘을 모아 마침내 독립을 이뤄낸 역사적 경험은, 해방 후에도 대한민국이 전쟁과 가난, 독재와 경제위기를 이겨내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위기 앞에서 우리의 저력은 다시 한번 빛났습니다.

동포들은 모국에 방역물품과 성금을 보내 주셨습니다. 또한 거주국의 한국전 참전용사들을 비롯한 취약계층에게 마스크 등 방역필수품을 나눠드렸고, 어려운 동포와 이웃을 도왔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는 격언을 실천해온 동포 여러분 덕분에 대한민국의 위상도 높아졌습니다.

각국 정부와의 협력도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뛰어난 민간외교관 역할을 해 오신 재외동포 한 분 한 분이 참으로 고맙고 자랑스럽습니다.

조국은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국에 자부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정부는 더욱 세심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정부는 ‘해외 체류 국민과 재외동포의 보호와 지원’을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해 실천해 왔습니다.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을 영사실로 승격시키고, 해외 사건사고 전담 인력도 대폭 확충했습니다.

2018년 문을 연 해외안전지킴센터는 365일 24시간 재외국민의 안전을 위해 실시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무엇보다 코로나 확산 속에서 동포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한인회와 협력하고, 현지 정부와 공조하여 막힌 하늘길을 열었습니다. 지금까지 122개국 6만2천2백 명의 재외국민을 안전하게 귀국시켰고, 46개국 2만2천5백 명의 재외국민을 거주국으로 안전하게 복귀시켰습니다.

올해 1월부터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 본격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달부터 ‘재외국민보호위원회’가 출범합니다. 정부 열세 개 부처가 재외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더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역량을 모을 것입니다.

독립을 위해 헌신하고도 해방된 조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분들에 대한 국가의 책무 역시 잊지 않겠습니다.

올해 1월 시행된 ‘사할린동포 특별법’에 따라 올해 말까지 350명의 동포들이 영주귀국을 앞두고 있습니다. 영주귀국을 원하는 사할린 동포들을 순차적으로 모두 고국으로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동포 여러분,

세계 각국의 정상들과 주요 인사들을 만날 때마다 동포들에 대한 칭찬을 듣습니다. 한인사회가 모든 분야에서 큰 성취를 이루고, 그 나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고마워합니다.

동포사회의 차세대들은 선대들의 뒤를 이어 거주국의 당당한 리더이자 모국의 성장파트너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를 무대로 성공신화를 써온 ‘한상’ 들은 국내기업의 수출과 해외 진출에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고 있습니다.



‘세계한인정치인협의회’를 비롯한 재외동포 정치인들은 거주국은 물론 전 세계 한민족을 하나로 묶는 리더로 활약하며, 한반도 평화의 굳건한 가교가 되어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동포 네 분이 미국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되었고, 지난 9월 한국계 최초의 독일 연방 하원의원이 탄생했습니다. 동포사회뿐 아니라 겨레 모두의 긍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동포사회의 성장과 더불어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유엔무역개발회의는 만장일치로 대한민국을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격상시켰습니다. 세계적으로 사상 최초의 일입니다.

지난 9월에는 UN 세계지식재산기구의 글로벌 혁신지수 평가에서 세계 5위, 아시아 1위를 차지했습니다. EU의 글로벌 경쟁국 혁신지수 평가 1위와 블룸버그 혁신지수 세계 1위에 이어, ‘혁신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재확인한 쾌거입니다.

무엇보다 문화·예술·스포츠를 통해 만든 대한민국의 ‘소프트 파워’가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나라를 뛰어넘는 공감과 연대의 힘으로 세계를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한류문화의 물꼬를 튼 것은 워니 워니 해도 역시 재외동포분들입니다. 현지에서 축적한 공감과 유대의 기반 위에서 K-팝을 비롯한 K-드라마와 영화, 게임, 웹툰, K-뷰티와 푸드까지 한류의 물길을 끊임없이 이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알파벳 ‘K’는 이제 대한민국의 품격과 소프트 파워를 상징하는 ‘브랜드’가 되었고, ‘메이드 인 코리아’는 세계인의 신뢰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더욱 반가운 것은 우리 동포들의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이 함께 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어와 한민족 역사를 배우고, 민족 정체성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이 재외동포 사회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우리 미래세대들이 한민족의 핏줄을 잊지 않으면서, 그 나라와 지역 사회의 당당한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것입니다.

한글학교와 한국교육원 등 재외 교육기관의 신설과 지원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모국 초청 연수와 장학사업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750만 재외동포의 역량 결집과 차세대 교육의 거점이 될 ‘재외동포 교육문화센터’의 건립도 차질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아울러, 동포사회의 차세대 인재들을 대한민국의 국가 인재로 유치하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존경하는 재외동포 여러분,  
세계 각국의 한인회장 여러분,**

우리 민족은 수많은 위기와 역경을 힘을 모아 헤쳐 왔습니다. 포용과 상생의 정신을 실천하며, 국경을 넘어 연대와 협력의 힘을 발휘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분단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재외동포들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남북으로 나뉘진 두 개의 코리아는 안타까운 현실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립할 이유가 없습니다. 체제 경쟁이나 국력의 비교는 이미 오래전에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함께 번영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통일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남과 북이 사이 좋게 협력하며 잘 지낼 수 있습니다.

한민족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동포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남과 북을 넘어 하나의 코리아가 갖는 국제적인 힘, 항구적 평화를 통한 더 큰 번영의 가능성을 동포들께서 널리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8천만 남북 겨레와 750만 재외동포 모두의 미래 세대들이 한반도와 세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공감하고 연대하는 꿈을 꿉니다. 그 길에 750만 재외동포 여러분이 함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세계 어디에 가도 동포 여러분이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해외순방 때마다 응원하며 힘을 주시는 동포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조국과 함께해 오신 750만 동포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동포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06



10



24

- 02 권두언 '세계 한인의 날' 문재인 대통령 축하  
문재인 대통령
- 05 동포 캘린더 재한동포경제인聯, 다문화 단체·기관에 마스크 5만개 기부 외
- 06 특집 한민족 공동체 번영 논의하는 '2021 세계한인회장대회' 개막
- 08 기획 온실가스 감축목표 40%로 상향... '2050 탄소중립' 향해간다
- 10 화제 문재인 대통령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중전선언 제안... 새 질서 출발점"
- 12 글로벌 코리아인 심상만 세계한인회총聯 초대회장 "750만 동포사회 목소리 대변"  
재미동포 오금석 씨, 대한민국 공헌대상 봉사대상 수상  
'장보고 한상' 대상 정영수 고문 "동포 주류사회 진입 돕겠다"
- 14 한민족 공감 문재인 대통령, 하와이서 독립유공자에 훈장... "가슴 울린다"
- 16 유공 동포 어머니 이어 무궁화훈장 받은 최중태 아마젠그룹 회장
- 17 주목! 차세대 한인 1.5세, 美 유명 요리잡지 '최고 신인 셰프'로 뽑혀
- 18 동포소식 김정숙 여사, 뉴욕서 차세대 韓 문화인 만나... K컬처 미래 논의 외
- 21 유관단체 소식 세종학당재단 이사장에 이해영 이화여대 교수 임명 외
- 22 지구촌 통신원 1 애틀랜타 총격 6개월... 피해자 지원·인종 화합 앞장선 한인들
- 23 지구촌 통신원 2 코로나도 못 말리는 카자흐 한류 열풍... "BTS 만나러 갈래요"
- 24 OKF 뉴스 제주서 27개국 한인 유망주 참가한 '세계한인차세대대회' 개최 외
- 26 추천도서 고려인, 카레이츠 100년을 거슬러 만난 고려인 외



발행인: 김성곤 등록번호: 문화-라 08249

발행처: 재외동포재단

본사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중로 55(구 서귀포시 제2청사)

전화: 82-64-786-0200, 팩스: 82-64-786-0239, www.korean.net / webzine.korean.net

서울사무소 주소: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타운 405호, 406호

전화: 82-2-3415-0100, 팩스: 82-2-3415-0118, www.korean.net / webzine.korean.net

기획·편집: 재외동포재단 홍보문화조사부 prc@okf.or.kr 제작: 연합뉴스 인쇄: 평화당

재외동포재단(Overseas Koreans Foundation)은 외교부 산하 기관(기타공공기관)으로 전 세계 750만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과 거주국에서의 주류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본지는 webzine.korean.net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재한동포경제인聯, 다문화 단체·기관에 마스크 5만개 기부

국내 조선족 경제인들의 모임인 재한동포경제인연합회(KDG·회장 이선호)는 9월 24일 다문화 단체와 기관에 마스크 5만 개를 기부했다. 이 회장은 이날 사회복지법인 갑을복지재단(이사장 박돈곤)에 마스크 2만 개, 서울시 서남권글로벌센터(센터장 김동훈) 2만 개, 전국귀환동포총연합회(회장 박성규)에 1만 개를 전달했다. 이 회장은 “우리 단체는 앞으로 대한민국 다문화 가정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갑을복지재단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해야 하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인적·물적자원을 동원해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의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 제주 스타상품 미국 LA 진출... 한인마켓서 판촉행사

제주도가 경쟁력 있는 제주 지역 대표 상품의 해외 진출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제주도와 제주경제동상진흥원은 제주산 상품의 홍보·판매를 위해 오는 9월 16~22일 미국 LA 현지에서 한인마켓을 대상으로 제주상품 판촉 행사를 개최했다. 도는 LA 소재 한인마켓 2곳에서 추석절 할인 행사, 시식코너 운영, 경품 행사, 업체 대표 대면 판매 활동 등 제주상품의 지속적인 판로 확보를 위한 다양한 마케팅을 펼쳤다. 앞서 도는 지난 6월 제주 스타상품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미국·러시아 바이어를 대상으로 온라인 수출상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양국 바이어들은 106건(191만 3천달러)의 구매 의사를 표시해 협상과 계약 등이 진행되고 있다.

### 미주가톨릭문학상에 정찬열 시인 '길위에 펼쳐이는 길'로 수상

미주가톨릭문학협회(회장 정해정)는 '제7회 미주가톨릭문학상' 수상자로 정찬열 시인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수상작은 등단 21년 만에 내놓은 첫 시집 '길 위에 펼쳐이는 길'이다. 심사 위원인 김재동 수필가와 정해정 시인은 “수상작은 일상 속의 여러 가지 감정들을 잘 표현해 놓았다. 인간을 이해하는 해학적 진실이 샘솟는다”며 “웃음을 터트리다가도 웃기를 여미며 눈시울을 붉히게 한다. 이민자의 삶에 긍정과 감사를 느끼게 해 준다”고 평했다. 전남 영암 태생인 정 시인은 성균관대, 전남대 대학원을 졸업한 뒤 중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다 1984년 미국에 이민했고, 1999년 미주 중앙일보 신춘문예 시 '마중'으로 등단했다.



### 네덜란드한인회, 화합과 응원 한마당 '한인 축구대회' 개최

네덜란드한인회(회장 박종학)는 지난 9월 11일 암스테르담 소재 란 반 포트 스포츠파크에서 '2021 네덜란드 한인 축구대회'를 개최했다. 한인동포 간 교류 및 지역 간 단합을 위해 열린 이번 대회는 약 6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암스테르담팀, 아인트호벤팀, 로테르담·헤이그 연합팀, 사회인팀 등 4개 팀으로 나눠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됐다. 최종 우승은 아인트호벤팀과의 결승전에서 3대0으로 압승한 암스테르담팀이 차지했다. 암스테르담팀에게는 우승 트로피와 50유로 상품권 11장이 상품으로 주어졌다. 박종학 회장은 “한인사회가 코로나로부터 해방돼 마음의 풍요로움을 함께 나누고 친선과 우의를 다진 축제”라고 밝혔다.

### 호주 시드니서 '서예가의 딸' 유지니아 김 북클럽 행사

호주 시드니한국문화원은 현지시간으로 9월 23일 온라인에서 한국문학 북클럽 행사를 개최했다. 재미동포 작가 유지니아 김의 장편 소설 '서예가의 딸'을 놓고, 현지 작가이자 변호사인 수잔 릴 씨의 진행으로 '작가와 대화'를 진행했다. '서예가의 딸'은 일제 강점기 엄격한 아버지와 순종적인 어머니 밑에서 자란 주인공이 귀족 집안으로 시집을 가면서, 그가 오래된 관습과 싸워나가는 여정을 그렸다. 워싱턴포스트는 2009년 이 소설을 '최고의 도서'로 선정하면서 “전통의 관습과 신문명 사이에서 신음하던 시대, 자유를 향한 갈망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던 한 여성이 어떻게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지 눈여겨볼 만하다”고 평했다.



### 월드옥타, 차세대 한인 경제인 150명에 창업 교육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는 각국 차세대 한인 경제인 150여 명에게 9월25일부터 10월 9일까지 창업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차세대 글로벌 창업 무역스쿨 모국방문 교육'은 코로나19 탓에 모국 초청 없이 온라인으로만 진행했다. 이번 교육프로그램에는 각국 138개 도시의 월드옥타 지회에서 무역스쿨을 마친 차세대 한인이 참가했다. 이들은 창업 계획을 세우고, 세계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아이디어를 공유한다. 또 글로벌 비즈니스의 실무와 이해, 글로벌 금융, 기업이 정신과 리더십 등을 주제로 한 특강을 수강했다. 또한 '대한민국의 디아스포라'를 주제로, 모국의 역사와 이민 문화를 이해하고 한민족 정체성을 다지는 시간도 가졌다.

한인회·한글학교 등 동포단체 행사를 소개합니다. 널리 알리고 싶은 소식을 이메일(prc@okf.or.kr)로 보내주세요

# 한민족 공동체 번영 논의하는 '2021 세계한인회장대회' 개막

67개국 310명 한인사회 리더 참석... 4~7일 서울서 온·오프 진행

**전** 세계 67개국 310명의 한인사회 리더들이 10월 5일부터 사흘간 서울 광진구 그랜드 워커히 호텔에서 모여 한민족 공동체 번영을 논의한 '2021 세계한인회장대회'가 국내외에 관심을 받으며 7일 막을 내렸다.

이번 행사는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열렸다. 5일 개회식에는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재외국민위원장, 김석기 국민의힘 재외국민위원장,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과 각국 한인회장, 정부 관계자 등 103명이 철저한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하나 된 동포, 더 강해진 대한민국'을 주제로, 미국, 중국, 일본, 캐나다 등 10여 개 지역별 현안 토론과 한인회 우수 운영사례 발표, 정부와의 대화 등을 진행했다.

개막식에 앞서 750만 재외동포를 기념하는 '제15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도 열려 유공자에게 정부 훈포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기념식 축사에서 "우리는 아직 분단을 넘어서지 못했다. 재외동포들 시각에서 보면 남북으로 나뉜진 두 개의 코리아는 안타까운 현실일 것"이라며 통일의 소망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통일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남과 북이 사이좋게 협력하며 잘 지낼 수 있다"며 "8천만 남북 겨레와 750만 재외동포 모두의 미래세대가 공감하고 연대하는 꿈을 꾸다"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조국은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다. 코로나 확산 속에서 동포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앞으로도 재외동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1

기념식에서는 멕시코-쿠바 이민 1세대 독립유공자의 후손인 임대한 씨가 참석, 쿠바와 한국의 가교 역할을 다짐하는 글을 낭독하기도 했다.

김성곤 이사장은 개막식 기조 강연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재외동포는 세계 시민이자 글로벌 코리아로서 책임 있는 행동과 시민의식이 더 중요해졌다"며 "재외동포 대표로서 한민족 공동체 발전과 인류 평화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 김성곤 이사장 "한인회 역량 모아 모국과 유대 강화"

개막식에 앞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세계한인회총연합회(이하 세한총연)가 전 세계 한인사회 역량을 모으고, 모국과 유대를 강화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세한총연은 지난달 5일 발기인 총회를 열어 심상만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장을 초대 회장으로 선출했으며, 세계한인회장대회 기간인 6일 총회를 열어 공식 출범했다.



2

기자간담회에는 대회 공동의장인 심 회장과 주점식 캐나다한인회총연합 회장도 참석했다.

김 이사장은 “동포사회 중심적인 한인회가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갖게 되면 유대인들의 세계적 네트워크인 ‘세계유대인회의’(World Jewish Congress)처럼 위상이 커질 것”이라며 세한총연의 창립을 반겼다.

그는 “전 세계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단체의 필요성에 공감해 왔는데, 대륙별 한인회연합 회장들이 먼저 제안을 해와 자연스럽게 여건이 조성됐다”며 “세한총연에 대해서도 다른 한인 단체와 마찬가지로 한인 위상 강화, 모국과의 상생 사업 등을 지원할 것이지만, 리더 단체인 만큼 신경을 더 쓸 것”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생계 위협에 처한 동포들에 대한 긴급 구호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심 공동의장은 “각국에서 관광업에 종사하는 한인들은 코로나19로 대부분 폐업했고, 생계가 어려워 자살하는 이도 나오고 있다”며 “현황 파악과 구호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도움을 호소했다.

주 공동의장은 “한인회장 상당수가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비즈니스를 위해 모국을 찾는 동포에게는 자가격리를 완화해 주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 “재외선거 보완·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건립” 등 결의

7일 폐막을 앞두고 열린 전체 회의에서는 ▲모국의 평화 통일 기반 조성에 함께 노력 다짐 ▲동포사회 숙원인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건립에 협력 ▲우편투표 도입 등 재외선거 제도 보완 촉구 ▲재외동포청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재외동포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전담 기관 설치 촉구 등 6개 결의문을 채택했다.

최우수 한인회 운영사례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인회 활동 강화와 극복’에 대해 발표한 폴란드한인연합회가 선정됐다. 남종석 폴란드한인연합회 회장은 “코로나 사태가 터지자 긴급 연락망 구축, 마스크 배포, 귀국 전세기 특별 운영, 백신 우선 접종 등에 앞장서 구심점 역할을 해낸 게 무엇보다 뿌듯하다”며 “한인회가 기민하게 안전 확보에 나섰고 합심해 위기를 넘긴 덕분에 유대감이 커지고 자부심도 생겼다”고 소개했다.



3



4



5

차기 대회 공동의장은 유제현 재유럽한인총연합회장과 유영준 중남미한인회총연합회장이 선정돼 내년 대회 개최와 운영에 힘쓰기로 했다.

행사를 주최한 재외동포재단 김성곤 이사장은 폐막식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적극적으로 참가해 준 한인회장들 덕분에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며 “어려운 상황이지만 재외동포 사회가 하나로 뭉쳐 대한민국의 발전에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창**

1. 문재인 대통령이 10월 5일 서울 그랜드 워커히호텔에서 열린 '세계한인회장대회 및 제15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 '2021 세계한인회장대회' 개막식에서 기조강연하는 김성곤 이사장.
3. 서울 그랜드워커히 호텔에서 열린 '2021 세계한인회장대회'에서 대회 운영위원들이 인사하고 있다.
4. 10월 5일 개막식에 앞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는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5. 10월 6일 대회기간 총회를 열어 공식 출범한 '세계한인회총연합회'.

# 온실가스 감축목표 40%로 상향... ‘2050 탄소중립’ 향해간다

기후위기 심화에 목표 재조정, 발전·산업·수송 등 감축 불가피

**정**부가 10월 8일 제시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안은 2018년 대비 40%로, 기존안(26.3%)보다 대폭 상향 조정됐다. 정부는 “기후위기의 심각성, 국제사회 구성원으로서 우리나라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향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상향안이 경제에 큰 타격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지나치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면 환경단체 등은 미흡하다고 지적한다.

## 정부 “주요국과 비교해도 도전적”

국제사회는 2015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100년까지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이하, 더 나아가 1.5도 이하로 제한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의 ‘파리 협정’을 맺었다.

파리 협정은 참여국들이 이 목표를 적극적으로 추구하도록 하기 위해 5년마다 점검·평가받도록 강제하는 목표인 NDC를 설정하도록 했다. 특히 2030 NDC는 2050 탄소중립(탄소배출량 0)을 향하는 과정에 있는 중간 목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부는 지난해 2050 탄소중립을 공식화한 후에도 2015년 6월 처음 수립한 2030 NDC의 목표는 상향하지 않은 채, 국내외 감축 비율을 조정하고 목표 설정 방식만 수정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2030 NDC 상향 기한을 2025년 이전으로 잡았던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심화하고, 이에 서둘러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내외에서 높아지자 전반적인 정책 방향을 2050 탄소중립을 향해 새로 설정했다.

한국판 뉴딜의 주요 추진축의 하나로 그린 뉴딜을 꼽는다면, 지난해 말에는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는 비전을 담은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을 유엔에 제출했다.

한정에 환경부 장관은 올해 초 취임한 직후 “2030 NDC를 연내 상향하겠다”고 밝혔고, 문재인 대통령 또한 “우리 여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감축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지난달 주문했다.

국회에서는 올해 8월 전세계에서 14 번째로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법제화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날 탄소중립기본법의 입법 취지, 국제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기술작업반 운영 및 관계 부처 검토 등을 거쳐 상향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탄소중립기본법에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정부는 법안을 다룬 국회 환노위에서 '정책 역량을 최대한 동원해 2018년 대비 40% 이상 감축된 수준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한 부대 의견 또한 고려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세계 주요국은 기준 연도 대비 탄소중립까지 균등 감축 수준으로 NDC를 상향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상향안의 연평균 감축률(기준 연도~목표 연도)이 4.17%로, 유럽연합(EU) 1.98%, 미국 2.81%, 일본 3.56% 등 주요국과 비교해서도 도전적인 목표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온라인 토론회 등으로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10월 안으로 탄소중립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 모든 부문 감축… GDP는 감소, 고용은 증가

정부는 발전·산업·건물·수송·농축수산 등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모든 부문에서 감축 노력을 극대화하기로 하고 국내외 감축수단을 모두 활용하되 국내 수단을 우선 적용했다.

구체적인 배출량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정점에 달한 2018년(7억2천760만 톤) 대비 40%(2억9천100만 톤)를 감축해 2030년 배출량이 4억3천660만 톤이 되도록 설정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전환 부문은 2018년 2억6천960만 톤에서 2030년 1억4천990만 톤으로 온실가스를 44.4% 줄여야 해 가장 큰 감축이 이뤄진다.

GDP 상승, 전기차 확대 등으로 전력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석탄 발전을 축소하는 대신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하고 추가 무탄소 전원(암모니아 발전)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

산업 부문에서는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온실가스 주요 배출 산업에서 원료 및 연료 전환 등의 방법을 활용해 2018년 2억6천50만 톤에서 2030년 2억2천260만 톤으로 감축한다. 건물 부문,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등에서도 획기적인 감축이 이뤄진다.

정부는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탄소가격제를 도입하고, 이를 통한 세수는 고용 지원에 활용한다. 2050년 탄소 가격은 1 톤당 55~250달러로 가정하고, 2030년 33%를 거쳐 2050년 100%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상향안을 통해 국내총생산(GDP)은 0.09~0.07% 감소하고, 고용은 최대 0.02%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분석안은 산업·수송·건물 등 부문별 전력화 확대 및 재생에너지 보급 잠재력 수준에 따라 기준 시나리오(기존 기술 진보 속도 적용)와 기술 진보 시나리오(가속화된 기술 진보 속도 적용)로 구분해 짰다. **장**



2



3



4



5

1. 정부는 최근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상향안을 확정했다. 석유화학 업체가 밀집해 있는 전남 여수시 여수국가산업단지
2. 10월 18일 서울 용산구 노들섬다목적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한정에 환경부장관이 2050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발표하고 있다.
3.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세계평화의문 앞에서 열린 녹색자전거봉사단연합회원들의 온실가스 줄이기 홍보 퍼포먼스.
4. 서울그린캠퍼스 대학생 홍보대사와 서울소재 대학생 등이 서울광장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그린캠퍼스 실천을 촉구하는 '온실가스 감축, Go! 그린캠퍼스' 퍼포먼스
5.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에서 열린 '피포지(P4G) 탄소중립 기념술 조성'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탄소 1 톤을 의미하는 대형 풍선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문재인 대통령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종전선언 제안… 새 질서 출발점”

임기 마지막 유엔총회 기조연설… “남북·북미대화 조속 재개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9월 21일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되었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6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를 여는 문”이라며 종전선언을 제안한 뒤, 이번에는 선언 주체를 6·25 전쟁 당사국들

인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를 향해서도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종전선언을 이뤄낼 때 비핵화의 불가역적 진전과 함께 완전한 평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한을 향해 “지구공동체 시대에 맞는 변화를 준비해야 한다”며 남북 이산가족 상봉의 조속한 추진,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 등을 통한 감염병·자연재해 대응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30년 전 남북의 유엔 동시가입에 대해 “결코 분단을 영속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며 “남북이 주변국들과 함께 협력할 때 한반도에 평화를 확고하게 정착시키고 동북아 전체의 번영에 기여할 것이고, 훗날 협력으로 평화를 이룬 ‘한반도 모델’이라 불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한국과 함께 북한에게 끊임없는 협력의 손길을 내밀어 주길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 이산가족 상봉 제안… “국제사회, 북한에 끊임없는 협력 손길을”

내년 5월로 임기를 마치는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의 시작은 언제나 대화와 협력으로, 남북 간, 북미 간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한다”며 “상생과 협력의 한반도를 위해 남은 임기 동안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최근 잇단 미사일 발사 등 북한에 의해 한반도에서 긴장감이 고조되는 데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지구공동체 시대’가 탄생했다고 짚으면서 “지구공동체 시대는 서로를 포용·협력하는 시대”라며 “유엔이 이끌어갈 연대와 협력의 국제질서에 한국은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구공동체가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로는 코로나 위기로부터의 포용적 회복, 기후위기 대응,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포함한 평화롭고 안전한 삶 등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유엔총회 기조연설은 취임 후 다섯 번째이자, 임기 마지막으로 이뤄졌다. 대통령은 지난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도 종전선언을 제안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종전선언에 대해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라고 규정하는 다소 원론적인 언급에 그쳤다면, 올해는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됐음을 함께 선언하자”며 훨씬 구체적인 제안을 했다.

이런 언급은 세 번의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외교가에서 구체적으로 종전선언 논의가 오가던 2018년 유엔총회 연설을 떠올리게 한다. 당시 문 대통령은 “비핵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들이 관련국들 사이에서 실행되고 종전선언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2018년 남북미 정상이 보여준 톱다운 행보가 지금 상황을 타개할 응급처방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하노이 노딜로 톱다운 방식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실무 단위에서 논의를 병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지만, 이후에도 별다른 진전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때일수록 역으로 정상들의 과감한 결단이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연설에 반영됐다는 것이다.

### 미사일 발사 관련 언급 없어… ‘지구공동체 시대’ 과제 제시

문 대통령은 올해가 남북의 유엔 동시기입 30주년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종전선언이라는 과감한 제안을 내놓을 적기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이번 연설은 문재인 정부의 그간 대북정책의 결산 성격으로도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2018년과 작년에 언급한 종전선언에 더해 2019년 유엔총회에서 밝혔던 전쟁불용·상호 안전보장·공동번영 등 3원칙을 다시 천명했다. 북한을 실제로 대화 테이블에 끌어내기 위한 장치인 ‘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체’ 구상, 남북 대화로 역내 평화를 선도하겠다는 ‘한반도 모델’ 구상도 재차 소개했다.



임기 마지막 유엔총회인 만큼 문재인 정부의 로드맵을 다시 한 번 국제무대에 자세히 알리고, 다음 정부에서도 이를 계승할 수 있도록 길을 닦아 놓겠다는 생각도 엿볼 수 있다. 최근 북한의 연이은 도발을 고려하면 이번 제안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 대통령도 이를 의식한 듯 이날 연설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등 최대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별개로 최근 북한의 태도로 보아 대화 테이블에 나오기를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창**

1. 문재인 대통령이 9월 21일 미국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 문재인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남북 종전선언을 제안했다.
3.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기조연설을 위해 뉴욕 유엔 본부로 이동하고 있다.
4. 경기도 연천군 남방한계선과 북방한계선 사이의 비무장지대(DMZ).



## 심상만 세계한인회총聯 초대회장 “750만 동포사회 목소리 대변” 한민족공동체 발전 기여 목표, “재외 우편투표 속히 도입해야” 호소

“세계 500여 개 한인회를 연결하고, 축적된 역량을 결집해 750만 재외동포 사회의 목소리를 대변, 고국 정부는 물론 각계에 직접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10월 6일 창립한 사단법인 세계한인회총연합회(이하 세한총연) 초대 회장을 맡은 심상만(70)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장은 단체 설립 취지를 이같이 밝혔다.

심 회장은 인터뷰에서 “그동안 아시아, 미주, 유럽 등 10개 대륙별한인회총연합회와 500여 개 지역 한인회가 동포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했지만, 이들을 연결하고 아우르는 공식 네트워크가 없었기에 이를 대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인회장대회 참석과 단체 창립을 위해 최근 인도에서 방한한 심 회장은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이 설립 과정에 많은 도움을 줬고, 1년 넘게 대륙별한인회총연합회장단과 속의 끝에 설립됐다”며 “현재 각국 한인회들이 속속 회원가입 신청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단체 설립에 정부와 각국 한인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있었음을 뜻한다. 실제로 김성곤 이사장은 세계한인회장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세한총연이 전 세계 한인사회 역량을 모으고 모국과 유대를 강화, 상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라고 힘을 실어줬다.

심 회장은 가장 먼저 내년 대선 투표에서 ‘우편투표제 도입’ 등 재외참정권 보장 실현을 위한 사업을 전개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심 회장은 이 같은 현안 외 다른 사업들은 각국 한인회장의 의견을 수렴한 뒤 추진할 방침이다.

세한총연은 회장, 수석부회장과 부회장, 이사 등으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서울 강남구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 삼흥오피스텔 1215호에 서울사무소를 두기로 했다.

정의당 대권주자인 심상정 의원의 친오빠인 심 회장은 1996년 현대자동차의 첸나이 공장 설립에 1차 밴드 협력사로 인도에 진출했고, 현재 ‘코테크’(KOTEC)를 경영하고 있다.

## 재미동포 오금석 씨, 대한민국 공헌대상 봉사대상 수상 오로라시 ‘유관순의 날’ 제정 앞장, 평화의 소녀상 건립도 추진

지난 2019년 미국 콜로라도주 오로라시가 매월 3월 1일을 ‘유관순의 날’로 제정하는데 앞장섰던 오금석(미국명 다니엘 오·72) 골드스톤&인베스트먼트 회장이 ‘제3회 대한민국 공헌대상’에서 봉사대상을 받았다.

세계청년리더총연맹 소속 대한민국 공헌대상 조직위원회는 최근 봉사를 비롯해 입법, 과학, 교육, 경제 등 각 부문 대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올해 해외에서는 유일하게 오 회장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오 회장은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기여했거나 나눔을 실천함



으로써 미래세대에 귀감이 되는 이들을 기리는 봉사 대상의 수상지로 선정됐다.

1975년에 미국으로 유학을 왔다가 정착한 오 회장은 지난 2019년 3월 1일을 ‘유관순의 날’로 선언하는데 큰 힘을 보태었다. 비록 통과에는 실패했지만, 콜로라도주 평화의 소녀상 기념재단 이사장으로서 오로라 시청 앞 잔디밭에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추진하기도 했다.

또 3·1운동 유엔 유네스코 등재 기념재단 덴버 지부장, 오로라시 인간관계위원회 커미셔너, 아시아 태평양 커뮤니티 재단 이사장, 민주평화통일 덴버협의회장,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덴버지회장 등을 지냈다.

애초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할 예정이던 시상식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행사로 대체됐다.

오 회장은 인터뷰에서 “나보다 더 잘하고 더 많은 것들을 해내신 분들도 많은데 나같이 미흡한 사람이 상을 타서 송구스러운 마음뿐이다. 이제 나도 70이 넘어 인생을 서서히 정리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 더 많이 베풀고 살고 좋은 일을 하며 살되, 마음은 비우면서 살고 싶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 ‘장보고 한상’ 대상 정영수 고문 “동포 주류사회 진입 돕겠다” 싱가포르 진출 1억달러 매출기업 경영… 2009년 CJ그룹 고문 맡아


올해 ‘장보고 한상(韓商) 어워드’ 대상을 수상한 정영수(75) CJ그룹 글로벌경영 고문은 “750만 재외동포가 해외에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고, 특히 후배들이 거주국 주류사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최근 밝혔다.

그는 “45년 동안 ‘졸면 죽는다’는 슬로건을 머리에 되새기면서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 판매 확장에 힘을 쏟았다”며 “이번 상은 이를 평가해 준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올해 6회째인 장보고 한상 어워드는 장보고글로벌재단(이사장 김덕룡)과 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이 제정했다.

이 상은 해외에 이주해 성공한 재외동포 경제인 가운데 장보고의 도전과 개척 정신을 계승, 대한민국의 경제와 문화 영토 확장, 한인사회 발전에 기여한 이에게 준다.

정 고문은 1981년 싱가포르에 진출했고, 3년 뒤 진맥스와 한국센트 제임스를 창업해 운영하면서 연간 1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으로 키웠다.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2007년부터 2019년까지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SICC) 이사를 맡아 한국 중소기업의 동남아 진출에 가교 역할을 했다.

싱가포르 한인회장, 아시아태평양지역 22개국 한인회를 총괄하는 한인회총연합회장, 제17차 세계한상대회 대회장을 지냈고, 세계한상대회 리딩 CEO(최고경영자) 포럼 공동의장을 맡고 있다.

2009년 회사를 매각하고 CJ그룹에 영입돼 미주와 유럽, 동남아 8개국을 총괄하는 글로벌경영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대한민국 국민훈장 모란장(2009년)과 더불어 베트남 정부로부터 문화훈장(2013년)을 수훈한 바 있다. 



# 문재인 대통령, 하와이서 독립유공자에 훈장… “가슴 울린다”

## 첫 해외 훈장 추서식… ‘독립운동 모금’ 故 김노디·안정송 지사

**하**와이 호놀룰루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9월 22일 하와이대학 한국학연구소에서 하와이 이민세대로서 최근 독립운동 공적이 확인된 고(故) 김노디 지사와 고 안정송 지사에게 훈장을 추서했다. 한국 대통령의 독립유공자 훈장 추서가 해외 현지에서 이뤄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은 김노디 지사는 미국 오벌린대학 재학 중인 1919년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제1차 재미한인대표자회의에 참석해 일제의 여성 인권 유린행위를 폭로하고 남녀평등을 역설했다. 또 대한부인구제회 임원으로서 독립운동 자금을 모금했고, 1921년부터 미국 각지를 돌며 한국의 독립을 호소했다.

안정송 지사는 대한부인회와 대한부인구제회 임원으로서 독립운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했고, 광복 후 재미한족연합위원회 대표단 일원으로 활동한 공적으로 인정받아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았다. 안 지사는 대한인국민회 총회장 등을 지내며 하와이와 미주 지역에서 독립운동을 해온 안원규 지사의 배우자이기도 하다.

### “독립 헌신한 분들 예우, 정부의 책무이자 영광”

2명의 지사에 대한 서훈은 지난 3·1절에 이뤄졌으며, 문 대

통령은 이번 하와이 방문 기간 김 지사의 장녀, 안 지사의 손녀에게 직접 훈장을 건넸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하와이 동포사회를 생각하면 늘 마음이 애뜻하다. 하와이 이민 1세대는 고된 노동과 힘겨운 생활 속에서도 조국의 독립에 힘을 보탤다. 하루 1달러도 안되는 품삯의 3분의 1을 떼어 300만 달러 이상의 독립자금을 모았다”며 “언제 들어도 가슴을 울리는 애국의 역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해외 독립유공자의 공적을 발굴하고 후손을 한 분이라도 더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독립에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는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책무이자 영광으로 여기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7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잊혀진 독립운동가를 끝까지 발굴하겠다”고 약속했고, 이후 정부는 독립유공자 발굴과 포상에 주력해 왔다.

이에 따라 2018년부터 올해 광복절까지 2천109명의 독립유공자에 대한 포상이 이뤄졌고, 이 가운데 79%에 해당하는 1천 668명이 정부 발굴에 의한 것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훈장 추서식에 학계, 교육계, 경제계 등 하와이 지역사회에 기여



1



2



하고 있는 동포들을 초청해 격려했다.

훈장 추서식에 앞서 문 대통령은 진주만 공격 전사자를 비롯해 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등의 전사자 3만6천여 명이 잠들어 있는 펀치볼 국립묘지를 찾아 헌화했다.

### 6·25 국군 유해 68구, 문대통령과 함께 고국으로

문 대통령은 또 호놀룰루의 히캄 공군기지 19격납고에서 '한미 유해 상호 인수식'도 주관했다. 한국 대통령이 6·25 전쟁 전사자 유해 인수식을 해외에서 직접 주관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하와이는 한미 전사자 유해발굴 협력을 상징하는 '미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 확인 기관'(DPAA)이 자리하고 있다.

청와대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호국영웅의 헌신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국가 무한책임' 의지를 구현하기 위해 이번 행사가 마련됐다"며 "최고의 예우를 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인수식을 통해 국군 전사자 유해 68구가 방미 일정을 마치고 이날 귀국길에 오른 문 대통령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왔다. 특히 68구의 유해 가운데 신원이 확인된 고(故) 김정숙·정환조 일병의 유해는 대통령 전용기에 실렸다.

청와대는 두 일병이 잠든 소관을 대통령 전용기 좌석에 모시고, 국방부 의장대 소속 의장병 2명을 소관 앞 좌석에 배치해 비행이 이뤄지는 동안에도 영웅의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두 전사자는 6·25 전쟁 당시 미 7사단 32연대 카투사로 복

무했으며 장진호 전투에서 전사했다. 북한의 유해발굴로 발견된 이들은 미군 유해들과 함께 하와이로 옮겨졌다가 지난 2일 신원이 최종 확인됐다.

또 신원 확인이 되지 않은 국군 전사자 유해 66구는 공군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 시그너스(KC-330)로 옮겨졌다. 이들 전사자에 대해서도 예우를 다하기 위해 서욱 국방부 장관이 시그너스에 탑승했다.

대통령 전용기와 시그너스에 실린 68구의 유해는 10여시간 비행을 거쳐 서울공항에 도착한다. 신원이 확인된 유해 2구는 가족의 품으로, 미확인 유해 66구는 신원확인 시설로 각각 향한다.

아울러 이날 인수식을 거쳐 미국으로 봉송되는 미군 유해는 6구인데, 이 가운데 1구는 지난 2018년 미국으로 송환된 유해와 같은 전사자다. 인수식에는 문 대통령 내외를 비롯해 양국 관계자와 6·25 전쟁 유가족 및 참전용사 38명 등도 함께했다. [\[장\]](#)

1.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히캄 공군기지 19번 격납고에서 열린 한미 유해 상호 인수식에서 유해 관포 교체를 지켜보고 있다.
2. 독립유공자 김노디 지사, 안정송 지사 후손에게 추서한 훈장과 훈장증.
3.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독립유공자 훈장 추서식에서 김노디 지사 후손, 안정송 지사 후손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4.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하와이대 한국학 연구소에서 열린 독립유공자 훈장 추서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5. 문재인 대통령이 독립유공자 훈장 추서식에 참석한 뒤 동포들과 인사하고 있다.

# 어머니 이어 무궁화훈장 받은 최종태 야마젠그룹 회장

## 재일동포 거상 “한일 친선 교류 ‘민간외교관’ 역할 하겠다”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어머니에 이어 아들까지 국민훈장 무궁화 훈장을 받은 재일동포가 있다. 10월 5일 오전 서울 광진구 그랜드 워커히호텔에서 열린 ‘제15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에서 무궁화 훈장을 수훈한 최종태(69) 야마젠 그룹 회장이다.

최 회장은 고국과 재일 동포사회, 그리고 고국과 거주국 일본의 교류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의 어머니 고 권병우 여사는 1994년 무궁화 훈장을 받았다. 어머니는 재일거류민단 부회장 겸 재일대한부인회 회장을 역임했다.

모자가 고국 정부로부터 무궁화훈장을 받은 사례는 재외동포로는 처음 있는 일이다.

최 회장은 인터뷰에서 “앞으로도 본국과 재외동포 사회의 발전을 위해 기여하고 싶다”며 “특히 한일관계, 한일 친선교류를 위해 민간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계속해서 ‘민간 외교관’으로 힘쓰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효고(兵庫)현 아마가사키(尼崎)시에서 태어난 동포 2세인 최 회장은 부모의 기업인 운송회사에 취직, 대학에서 습득한 경영학을 활용하고 축구를 하며 길러온 리더십을 발휘해 일본 간사이(關西) 지역 굴지의 기업 야마젠 그룹을 일궈냈다.

현재 유기업(遊技業)과 부동산업, 골프장 경영 등을 하며 고국과 재일동포 사회 발전을 위해 앞장서는, 일본 내 손꼽히는 거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에서 최종태 야마젠그룹 회장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하고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상). 일본 돗토리현의 다이센 골프클럽에서 열린 2015년 ‘제1회 한일 국가대표 친선경기’에서 우승한 뒤 허정구 대한골프협회 회장(오른쪽 여섯 번째)과 강형모 단장, 최종태 다이센 골프클럽 회장 등이 한국 측 인사들과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국청년회의소 해외지구 회장과 부회장을 지낸 그는 1980년대 재일동포의 인권 문제와 관련된 ‘지문날인 제도 거부 운동’을 주도했다. 당시 50만 명의 서명을 모아 일본 내각의 관방장관에게 전달했고, 지문날인 제도 완전 철폐에 공헌했다.

한국계 금융기관인 신용조합 ‘고베상은’ 이사, 효고한국상공회의소 회장, 재일한국상공회의소 회장을 역임하면서, 차세대 경제인 양성과 한일 간 경제 교류에도 힘을 쏟았다. 국내 대한상공회의소, 미주한인상공인총연합회, 재중한국상회와 자매결연을 체결해 국내외 한국계 상공단체와 관계를 진전시켰다.

재외동포재단이 주최하는 세계한상대회 대회장(2007년 부산)을 맡아 한인상공인의 세계적인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에도 일익을 담당했다.

골프를 통한 한일 간 민간 교류에도 앞장섰다. 재외동포로서는 처음으로 국내 대한골프협회 이사에 오른 그는 자신이 경영하는 다이센(大山) 골프클럽에서 격년으로 ‘한·일 골프 국가대표 친선경기’, ‘다이센 컵대회’를 열고 있다.

본국 수해 지원을 비롯해 효고 한국회관 건설, 한신 대지진과 동일본 대지진 부흥을 위한 지원 등 지금까지 5억 엔(약 53억 원)을 기부했다.

한국 정부는 공로를 인정해 국민훈장 목련장, 보국훈장 광복장, 국가유공자 증서 등을 수여했다. 일본에서도 효고현 지사 ‘감사장’(2009년)과 고베시 ‘산업공로자 표창’을 받았다. **[장]**



# 한인 1.5세, 美 유명 요리잡지 ‘최고 신인 셰프’로 뽑혀

‘미스 김 주방’의 김지혜 셰프, ‘푸드 앤 와인’서 집중 조명

**미**국 미시간주 앤아버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한인 1.5세 셰프가 올해 ‘최고 신인 셰프’로 선정됐다. ‘푸드 앤 와인’ 홈페이지(www.foodandwine.com)와 미주 한국 일보에 따르면, 주인공은 2016년 앤아버에 ‘미스 김 주방’을 개업한 김지혜(43) 셰프다.

그는 매년 베스트 레스토랑과 셰프를 선정하며 요리업계 에 큰 영향력을 미쳐온 잡지 ‘푸드 앤 와인’이 선정한 ‘2021 베스트 뉴 셰프’에 뽑혔다. 이 잡지는 “김 셰프가 미시간주에서 재배되는 신선하고 풍성한 농산물을 식자재로 활용하고, 어머니의 음식에서 영감을 받은 요리를 만들고 있다”며 “풍미는 물론이고 한국 요리의 역사를 담은 작품과도 같다”고 설명했다.

‘푸드 앤 와인’은 매년 경력 5년 미만의 유망하고 역동적인 셰프를 ‘최고 신인 셰프’로 선정하는데, 김 셰프는 올해 미시간주에서 다섯 번째로 뽑혔다. 그는 지난해 ‘요식업계의 아카데미상’으로 불리는 제임스 비어드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

서울 출생인 그는 13세 때 가족과 함께, 한식당을 운영하는 이모가 사는 미국 뉴저지에 이민을 왔다. 미시간 주립대 앤아버에서 정치학과 경제학을 전공했다. 영주권을 받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을 했고, 한때는 병원에서 미수금 경리로도 일했다. 그러다가 유명 식당 프랜차이즈인 징거만으로 이직했다. 본격적으로 요리를 배우기 위해 이전 회사보다 급여가 90%나 깎였지만 이를 감수하며, 만두를 빚어 징거만 레스토랑과 인근 식당에 팔기도 했다.

요리에 대한 열정을 키워가던 그는 징거만의 식당 창업 스쿨을 마쳤고 징거만 델리의 주방 샌드위치 담당을 거쳐 레스토랑 요리사로도 근무했다. 이와 함께 푸드트럭을 운영하다가 2016년 징거만의 후원으로 자신의 레스토랑을 창업하게 됐다.

그는 한국에서 가장 흔한 성씨 ‘김’과 식당 주인이 여성



김지혜 셰프가 운영하는 ‘미스 김 주방’ 한식당의 요리들.

셰프임을 강조하고 싶어 식당 이름을 ‘미스 김’이라고 지었고 한글로 ‘주방’이라는 단어를 로고에 넣었다.

김 셰프의 식당은 한국의 전통 요리에 뿌리를 두면서 미시간의 풍성한 농산물을 식자재로 활용함으로써 커뮤니티 농부들과 협력, 맛있는 제철 음식을 선보이는 것으로 유명하다.

김 셰프는 요리 하나하나에 한국 음식의 역사를 담았다고 한다. 떡볶이를 만들 때도 신선한 식자재를 활용해 서울의 궁중식 떡볶이 레시피와 비슷하게 요리해 손님에게 내놨다.

이밖에도 삼겹살 비빔밥, 한국식 프라이드 치킨, 두부 튀김, 간장 버터밥 등 한식과 퓨전식 메뉴를 함께 선보이고 있다

‘미스 김’ 웹사이트(misskimannarbor.com)에서 김 셰프가 만든 요리와 그간 활동상을 확인할 수 있다. **장**

## 김정숙 여사, 뉴욕서 차세대 韓 문화인 만나… K컬처 미래 논의

“한미 문화교류 밑거름 돼달라”… ‘한복의날 제정’ AAYC 대표 등 참석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김정숙 여사는 9월 21일 오전 현지에서 문화계를 이끌고 있는 차세대 리더들을 만나 K컬처의 미래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간담회에는 해외에서 최초로 ‘한복의날’ 제정을 끌어내 주목을 받은 재미차세대협의회(AAYC)의 브라이언 전 대표를 비롯해 현지 한인단체 관계자들과 뮤지컬·음악·무용·태권도·문학·공연·한식 등의 분야에 활동하는 동포들이 참석했다.

김 여사는 이 자리에서 K팝과 한국 영화 등이 인종과 국경을 초월하여 보편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우리 문화의 위상이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은 문화계 종사자들의 기여



김정숙 여사가 미국 주뉴욕한국문화원에서 차세대 한인 청년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의견을 개진했다.

김정숙 여사는 전날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에서 그룹 BTS(방탄소년단) 및 참석자와 한국실 개관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날 김 여사는 미술관 측에 삼베를 천연 옷칠로 겹겹이 이어붙여 만든 정해조 작가의 공예 작품 ‘오색광율’(五色光律)을 전달했다.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김 여사는 “각 분야에서 활약하는 한인 차세대 리더들의 열정과 노력은 750만 재외동포 사회의 미래”라며 “자부심을 갖고 우리 문화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한미 문화 교류 증진의 밑거름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현지에서 느낀 한국문화의 영향력과 자긍심, 현재 뉴욕에서의 한류의 현황과 미래 등에 대해 다양한

## 박병석 의장, 오스트리아 동포 간담회… “모범동포가 양국 가교”

양국 관계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 “한인사회에 의미있는 해”

제5차 세계국회의장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오스트리아 빈을 공식 방문 중인 박병석 국회의장은 9월 6일 동포 대표들과 간담회를 하고 한인사회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박 의장은 이날 수도 빈의 한 호텔에서 진행한 간담회에서 “2천700여명 동포 여러분이 그야말로 아주 모범적인 활동을 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며 “여러분이 민간 외교관이고, 한국과 오스트리아를 잇는 가교이자 문화 사절단”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6일 볼포강 소보트카 오스트리아 하원의장과의 회담을 시작으로 러시아·일본·인도 등 16차례에 걸친 양국 국회의장 회담을 가지게 됨을 언급한 뒤 “대부분은 상대국이 저를 만나자고 요청했다. 한국에 대한 관심과 위상을 실감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소보트카 의장과의 회담이 1시간 동안 예정됐으며 “이렇



박병석 국회의장이 오스트리아 빈의 한 호텔에서 열린 현지 동포들과의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게 장시간 회담이 참 드문데, 이는 오스트리아에 계신 여러분들과 국민이 잘 쌓은 복”이라고 강조했다.

오스트리아 정부가 유럽연합(EU) 회원국 가운데 처음으로 한국의 KF94를 공식 표준 마스크로 인정한 점도 언급했다.

임창노 한인회장은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에 다음 해 한국-오스트리아 양국 수

교 130년을 맞이해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한인 사회에 대단히 의미가 있는 한해”라고 화답했다.

현지 기업인인 박종범 전 민주평통 부의장은 “오스트리아 학진자 수가 매일 1천500명 수준으로 인구(904만명) 대비 비율로는 한국보다 6배 높다. 그런데 오스트리아는 ‘위드(With) 코로나’로 가고 있다”며 한국의 방역 대책 전환을 촉구했다.

## 재외동포, 코로나 유행 속 이웃과 온정 나누며 쇠는 ‘추석 명절’

독거노인과 다문화가구 등에 쌀·송편·생필품·방역품 기부

재외동포 사회는 코로나19의 세계적인 대유행 속에 맞는 민족의 명절 추석을 이웃과 온정을 나누며 보냈다.

하와이 한인문화회관(위원장 아만다 장)은 추석 당일인 9월 21일 호놀룰루 소재 시니어 아파트에 거주하는 동포 어르신들에게 떡과 마스크, 세정제 등을 전달했다. 한인문화회관 이사진이 십시일반 정성을 모아 외출이 자유롭지 못한 이웃과 소통을 제대로 못하는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 떡과 방역 제품을 나누었다.

미국 LA 한인상공회의소(회장 강일한)는 추석 전날인 9월 20일 남가주새누리교회에서 식품과 방역품이 포함된 150달러 상당의 구호 패키지를 무료로 제공했다.

강 회장은 “추석은 이웃을 돌아보고 풍성함을 나누는 것이 고유 관습”이라며 “코로나19로 지친 이웃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



캄보디아한인회는 추석을 맞아 독거노인과 다문화 가정에 위문품을 전달했다.

기 위해 나눔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뉴욕한인회(회장 찰스 윤)는 9월 18일 한인 밀집지역인 퀸즈 플러싱 머레히힐역 광장에서 ‘추석맞이 사랑의 식품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캄보디아 한인회(회장 박현옥)는 추석을 앞두고 2차 사랑 나눔 행사를 펼쳤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독거 노인과 다문화 가정 25명에게 생필품과 방역 용품을 전달했다.

한인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런 사랑 나눔을 자주할 수 있으면 한다. 소소한 사랑이 모여서 많은 한인에게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독일 남부글뤽아우프복지회(회장 선경석)는 앞서 9월 13일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한식당에서 코로나19에 지친 한인 60여 명을 초청해 추석맞이 나눔 문화행사를 열었다.

## 중국 선양시 한중 우호 교류행사 ‘제18회 한국주간’ 개최

국내 대기업·중국 한상 기업 참여 투자무역박람회도 열려

북중 접경지역이자 중국 동북 3성 중심 도시인 라오닝성 선양(瀋陽)에서 한중 경제문화 교류 행사인 ‘선양 한국주간’ 행사가 9월 24일부터 사흘간 열렸다. 주선양한국총영사관과 중국 선양시 인민정부, 요녕성 상무청이 공동 주최하고 선양한국인(상)회, 선양시 상무국, 코트라,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했다.

올해로 18회째를 맞은 이 행사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여파로 2016~2017년 2년간 열리지 못하기도 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는 라오닝성 지방정부가 한국 투자 유치에 의욕을 보이면서 한중 투자무역 박람회와 겸해 치러지고 있다. 선양 신세계박람관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한국 대기업 등 20개 기업전시관, 경기도 지자체 전시관, 선양한국인(상)회 한중무역관, 코트라 종합소비재 전시 및 기업 상담관이 운영됐다. 한국관 특설무대에서는 각종 문화·홍



9월 24일 중국 라오닝성 선양에서 열린 한중 교류행사 ‘한국주간’ 개막식

보행사도 진행됐다.

박람회 기간 중에는 루쉰미술대학과 한국 홍익대가 주관한 ‘한중문화예술교류전-도시도감’ 전시회가 진행됐다. 이밖에 선양시-재중한국기업 좌담회, 한중 항공산업 교류협력 결합 모임, 한중문화상품 기업 발전포럼, 태권도 시범, 우수상품 소개 등의 행사가 진행됐다.

최두석 선양주재 한국총영사는 “중국 여러 곳에서 한국주간 행사를 하지만 선양이 가장 오래됐다”면서 “지리적 근접성, 문화적 유사성, 많은 동포의 존재 등 좋은 여건을 살려 선양이 한중 교류의 중심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개막 전날인 9월 23일 열린 ‘한중 우호의 밤’ 행사에서는 중국인 출연자들이 ‘난타’를 선보였고, 민요 ‘아리랑’과 1988년 서울올림픽 주제가인 ‘손에 손잡고’를 부르기도 했다.

## 재일본한국연합회, 코로나 확진 자택격리 동포에 생필품 지원

日정부 지원 지연으로 어려움 겪는 자택격리자에 한식품 제공

재일본한국인연합회(회장 김재욱)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자택격리 중인 재일동포에게 생필품을 지원하고 있다.

한인회는 9월 1일 1차로 96명에게 5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전달했고, 9월 7일 2차로 100명에게 발송했다. 생필품 박스에는 즉석밥과 라면, 음료수, 일회용 조리용품, 손소독제, 마스크 등 21개 물품이 포장됐다.

한인회는 “일본 내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의 구호 물품 지원이 늦어짐에 따라 한국인 확진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보고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도 2주 동안 자택격리를 해야 하는 코



재일본한국인연합회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자택격리하며 어려움을 겪는 한인들에게 생필품을 전달하고 있다.

나19 확진자에게 생필품을 지원하지만 물품 발송이 늦거나 지원 식품이 한국인 입맛에 맞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고 알려졌다.

한인회는 홈페이지(www.haninhe.com)를 통해 자택격리 중인 재일동포로부터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도쿄뿐 아니라 일본에 거주하는 한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물품 구입 자금은 한인회 회원들의 기부로 마련되었다.

연합회는 지난해 12월21일 노숙자들에게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배포하는 행사를 갖기도 했다. 김재욱 회장과 이의형 이사장 등 10여명의 회원은 신주쿠 요요기 공원에서 노숙자들에게 핫팩 500장, 소독젤 100개, 마스크 5천개를 전했다.

## 에네켄 한인들 恨 담은 멕시코의 아리랑, 영상으로도 탄생

주멕시코 한국문화원, 전년도 아리랑 콩쿠르 우승작 뮤비로 제작

116년 전 멕시코에 도착해 뿌리를 내린 1세대 한인들을 기리며 멕시코 음악인들이 만든 아리랑이 양국의 아름다움을 담은 뮤직비디오로 만들어졌다. 주멕시코 한국문화원은 최근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현지 주요 인사와 언론을 초청해 ‘아이레스 데 아리랑’ (Aires de Arirang · 아리랑의 공기) 뮤직비디오를 공개했다.

‘아이레스 데 아리랑’은 지난해 멕시코에서 개최된 제2회 아리랑 콩쿠르의 우승작이다. 멕시코 작곡가 엔리케 로모와 소프라노 클라우디아 코타, 한인 피아니스트 신현준이 협업한 이 노래는 1905년 멕시코 에네켄(웅설란의 일종) 농장으로 노동 이민을 온 1세대 한인들을 기리는 노래다.

뮤직비디오는 116년 전 한인들이 떠난 고국을 그리워하면서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아리랑 뮤직비디오 발표회 현장에서 현지 음악인들이 한인 1세대의 恨을 담은 아리랑을 선보이고 있다.

도 멕시코를 새 삶의 터전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을 멕시코 어린아이들에게 투영해 담아냈다. 광화문과 경복궁, 용궁사, 보성낙차밭, 낙안읍성 등 한국의 명소와 과거 한인들이 처음 도착한 유카탄반도를 비롯한 멕시코 곳곳의 아름다운 장소가 교차 편집되며 한데 어우러졌다.

박영두 문화원장은 “한국과 멕시코 국민에게 양국 명소를 소개하고 양국의 오랜 이민 역사를 알려줌으로써 양국 협력 강화와 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문화원은 2017년 한국에서 촬영한 첫 뮤직비디오를 시작으로, 2018년 멕시코 대지진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남부 옥악사카에서 촬영한 ‘시엘리토 린도 코레아노’, 2019년엔 멕시코시티를 배경으로 제작한 ‘아리랑 콤비아’를 제작해 공개했다. [장]

## 세종학당재단 이사장에 이해영 이화여대 교수 임명

문화체육관광부는 9월 28일 세종학당재단 이사장에 이해영(55)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임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2024년 9월 27일까지다.



임명장을 받은 이해영 신임 세종학당재단 이사장(좌측)과 황희 문화체육부장관.

이해영 이사장은 이화여자대학교 한국학과 교수, 문체부 국어심의회 위원,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 위원, 이중언어학회 회장 등을 역임한 한국어교육 전문가로서 한국어 교육과정 및 교재개발, 한국어 교원 양성 등 한국어교육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 성과를 쌓아 왔다.

문체부 황희 장관은 “신임 이사장이 그동안 학계와 현장에서 쌓은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세종학당재단의 역할과 기능을 한층 더 강화해 앞으로도 전 세계에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알리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취임 후 인터뷰에서 “재단은 단순히 해외에 한국어를 보급하는 기관에 그치지 않는다”며 “해외에서 친한파 세력을 키우는 외교 산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교수로 있으면서 수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공부하기 위해 오는 것을 보고 이들의 열기가 얼마나 큰지 잘 알고 있다”면서 “앞으로 국내외 우수한 한국어 인재들을 모아 세종학당의 전문적인 인력으로 키워내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 40년 한일교류사 연구 헌신한 日 교수, 한국국제교류재단상 받아

한국국제교류재단(KF, 이사장 이근)은 ‘제8회 한국국제교류재단상’ 수상자로 일본 교토예술대의 나카오 히로시(仲尾宏·85) 객원교수를 최근 선정했다. 이 상은 해외에서 한국을 바로 알리기 위해 노력한 개인 또는 단체의 노고를 기리기 위해 2008년 제정됐다. 수상자에게 상장과 함께 2만 달러(약 2천 400만원)의 상금을 준다.

나카오 교수는 40년간 한일 교류사 연구에 전념해 일본 내

한국에 대한 이해 제고와 양국 민간교류 확산에 기여했다. 2017년에는 한일 공동으로 ‘조선통신사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하는 데에 공헌했다. 2006년 윤동주 시인의 하숙집터였던 교토예술대학 다카하라(高原) 교사에 윤동주 시비(詩碑) 건립을 주도했고, 매년 윤 시인 추모행사를 여는 데 기여하고 있다.



‘제8회 한국국제교류재단상’ 수상자로 선정된 日 교토예술대 나카오 히로시 명예교수

나카오 교수는 재일동포 문제를 인권 시각으로 접근해 권익 신장과 한일 관계 개선 등에도 힘썼다. 진주시와 교토시간 교류를 추진해 교토시로부터 국제교류상, 국제교류공헌상 등을 받았다. 국내에 번역된 저서로는 ‘조선통신사: 에도 일본의 성신외교’, ‘조선통신사 이야기: 한일 문화 교류의 역사’ 등이 있다.

## 한·아프리카재단이사장, 가나 방문 마치고 귀국… “양국협력 모색”


여운기 한·아프리카재단 이사장이 엿새 간의 가나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고 한·아프리카재단이 최근 밝혔다.



샬리 아요코 보치웨이 가나 외교장관(왼쪽)과 여운기 한·아프리카재단 이사장.

10월 6~11일 가나를 찾은 여 이사장은 샬리 아요코 보치웨이 가나 외교장관과 왓켈레 메네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사무총장, 프레드 빈카 가나 보건종합과학대학(UHAS) 부총장, 찰스 멘사 아크라경제연구소(IEA) 소장 등과 함께 재단의 주요 사업을 공유하고, 향후 양국 간 관계 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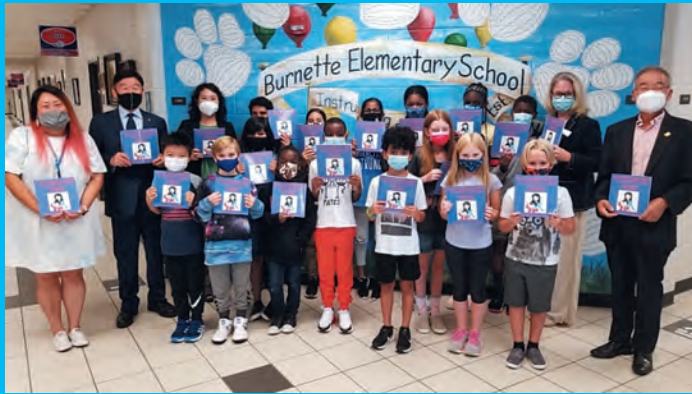
여 이사장은 재단이 주최하는 ‘2021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포럼’과 ‘제4회 서울아프리카대화(SDA)’를 소개하고, 가나 정·재계와 학계 주요 인사들의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

이어 아프리카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들을 위해 네트워크 구축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밖에 가나 기업인 명예의 전당에 등재된 핀테크 기업 ‘페이스スイッチ’의 최승업 대표를 비롯해 우리 한인들을 만나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 

# 애틀랜타 충격 6개월...

## 피해자 지원 · 인종 화합 앞장선 한인들

### 한국어 동화책 공립학교에 기부... 변호사들 1백만 달러 모금 나서



'애틀랜타 아시아인 혐오범죄 중단 촉구 비상대책위원회'는 조지아주 귀넷 카운티 3개 초등·중학교에 인종 화합을 다룬 한국어-영어 2개 국어 동화책을 기부했다(좌). 미국 조지아 한인변호사협회와 조지아 아시아태평양계 변호사협회는 최근 '아시아 태평양계 미국인 범죄 피해자 교육기금' 모금 계획을 밝혔다.

지난 3월 한인 4명 등 8명의 안타까운 희생자를 낸 미국 애틀랜타 충격사건이 발생 6개월을 넘어서면서, 증오범죄 방지와 인종 화합을 위해 한인들이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조지아주 귀넷 카운티 교육청은 '애틀랜타 아시아인 혐오범죄 중단 촉구 비상대책위원회'가 최근 파슨스 초등학교 등 3개 공립학교에 한국어-영어 2개 국어 동화책 100여 권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귀넷 카운티 교육구는 조지아주에서 한인 등 아시아인 학생들이 가장 많은 곳이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너를 사랑해'라는 제목의 이 동화책은 교육청 멘토링 국장인 누리 크로퍼드가 영어로 글을 썼고, 한인 고희진 씨가 한국어 번역을, 고줄리 씨가 삽화를 담당했다. 이 책은 인종, 문화, 출신 배경을 뛰어넘어 모두가 사랑하고 화합해야 한다는 내용을 한국어와 영어로 적고 있다.

20여 개 한인 단체로 구성된 비대위의 김백규 위원장은 "6개월 전 불행한 사건을 계기로 한인사회와 미국 사회가 서로를 이해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한국 출신 학생들에게 모국어를 가르치고, 학생들에게 어릴 때부터 아시아인 커뮤니티에 대해 가르치기 위해 책을 기부하게 됐다"고 말했다.

책을 기부받은 파슨스 초등학교는 2019년부터 한국어 몰입수업을 시행하고 있다. 백인, 흑인, 아시아인 등 다양한 인종의 학생들은 하루 중 반나절은 한국어, 반나절은 영어로 수업받고 있다. 이 학교 로라 클라크 교장은 "한국어-영어 병행 학생들의 수업 성과는 영어로만 이뤄지는 학급과 별 차이가 없다"며 "학생들이 아시아인 등 다른 문화와 관습을 이해하는 긍정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조지아 한인변호사협회와 조지아 아시아태평양계 변호사협회는 충격사건

피해자 및 혐오범죄 방지를 위해 만든 '아시아 태평양계 미국인 범죄 피해자 교육기금' 규모를 1백만 달러로 늘리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조지아 북부지역 연방 검사장을 지낸 박병진 변호사 등 다양한 한인 변호사가 참여한다.

박병진 변호사는 "미국 전역을 뒤흔들고 아시아인 커뮤니티에 큰 충격을 준 사건 발생 6개월을 맞아 우리는 아시아인에 대한 편견과 혐오에 맞서 싸워야 한다"며 기금 모금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6개월 전인 지난 3월 16일 백인 남성 로버트 애런 룡(22)이 애틀랜타 인근 스파, 마사지숍에서 충격을 가해 한인 4명을 포함한 아시아계 6명과 백인 등 총 8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끔찍한 참사가 벌어졌다. 룡은 지난 7월 체로키 카운티 법원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풀턴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돼 이국 법원에서 별도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

# 코로나도 못 말리는 카자흐 한류 열풍... “BTS 만나러 갈래요”

한국유학박람회에 1천 1백여 명 몰려 북새통, 한식 인기 확산



워크 스루 방식을 적용한 2021 한국유학박람회장 모습(좌). 한국문화원이 매주 선보이는 온라인 '한식 강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 속에서도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에 한류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K-팝과 K-드라마 중심의 한류가 교육과 한식 등으로까지 확산하면서 곳곳에서 한류의 드높은 인기가 감지되는 모습이다.

‘교육 한류’는 최근 최대 도시 알마티에서 열린 ‘2021 한국유학박람회’와 수도 누르술탄에서 선보인 ‘한식 강좌’ 등에서도 확인됐다.

국립국제교육원과 알마티한국교육원 공동 주관으로 지난 9월 25일부터 나흘간 한국의 39개 대학이 참여한 가운데 온·오프라인 행사로 진행된 ‘2021 한국유학박람회’에는 대학생, 고교 졸업예정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북새통을 이뤘다.

행사장 곳곳에서는 한국의 각 대학 정보와 입학 등록절차, 다양한 장학 프로그램 등을 묻는 학생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또 온라인 채팅을 통해 관심 있는 대학의 유학 업무 담당자와 1:1로 직접 상담을 통해 더 구체적인 유학 정보를 꼼꼼히 챙기는 모습도 보였다.

주최측의 한 관계자는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손 소독, 거리두기 등 복잡한 절차에도 모두 1천 1백여 명이 몰렸다”며 현지 학생들의 큰 관심에 놀란 반응을 보였다.

한국교육원에서 주최한 ‘2021 GKS(정부초청장학생) 온라인 설명회’에도 작년보다 5배 이상 늘어난 206명이 참석하는 등 뜨거운 관심이 이어졌다.

김태환 알마티한국교육원장은 “최근 홍범도 장군의 유해봉환과 토크야프 대통령의 방한으로 더욱 가까워진 양국관계를 반영한 듯 많은 학생들이 참가했다”면서 “카자흐스탄에 뜨거운 교육한류 열풍이 일고 있다”고 평가했다.

유학박람회 현장을 찾은 아이다나 메데노바(22)양은 “BTS를 만나기 위해 한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다”며 들뜬 표정을 지었다. 행사장에 나와 있던 루흐쇼나(21)양은 “최근 독일유학 계획을 한국으로 바꿨다”면서 “한국문화의 매력에 빠졌다”라고 한국어로 말하기도 했다.

최근 한국문화원의 온라인 ‘한식 강좌’도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며 관심을 끌고 있다. 매주 한식 반찬, 국물요리, 길거리 음식 등 14가지의 요리를 선보이고 있다. 특히 비빔국수, 김말이, 라볶이, 계란 지단 김밥, 튀김 요리 등 길거리 음식도 현지인들의 입맛을 돋우고 있다.

카자흐스탄에는 지방의 소도시에도 한인이나 고려인들이 운영하는 한식당이 성업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약 11만명의 고려인들이 사는 카자흐스탄은 2000년대 초부터 K-팝과 K-드라마가 큰 인기를 누리기 시작했으며, 최근에는 한국 취업을 다녀온 사람들까지 더해지면서 한류 열풍이 거센 국가로 떠오르고 있다. **장**

## 제주서 27개국 한인 유망주 참가한 '세계한인차세대대회' 개최



세계한인차세대대회가 9월 7일부터 10일까지 제주도 서귀포시 그랜드 조선 제주에서 열렸다.

온·오프라인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3박4일간 진행되는 2021 세계한인차세대대회가 9월7일 개막했다. '한인 차세대, 세계를 위해 나아가다'라는 주제로 10일까지 열린 이번 차세대대회엔 27개국 136명의 한인 차세대 리더들이 참가했다.

재외동포재단은 이날 오전 제주도 서귀포시 그랜드 조선 제주에서 개막식을 열고 이 장면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했다.

개막식에서 김성곤 이사장은 "홍익인간 정신으로 한민족 평화공동체를 만드는 일이 동참해 주시고, 더 나아가 세계의 모든 민족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고 세계 평화를 건설하는 일에도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의 축사 영상, 영김 미국 연방하원의원 기조 강연, 제라진소년소녀합창단의 공연이 진행됐다.

정 장관은 축사를 통해 "모국 대한민국과 젊음이라는 공통분모로 한데 모인 한인 차세대들이 우리 재외동포 사회의 밝은 미래"라며 "차세대 동포들이 주축이 되어 마음껏 역량이 발휘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체계화 및 소통의 기회를 넓혀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조 강연자로 나선 영 김 미국 연방하원의원은 '한인 이민자에서 국회의사당까지'를 주제로 한인 여성 최초로 미국 연방 회의에 진출한 경험과 노하우를 이야기했다.

8일 저녁엔 홍익포럼이, 9일엔 국무총리와의 간담회와 정부와의 간담회, 차세대리더콘퍼런스 회의 등이 진행됐다. 10일엔 전체회의와 특별강연에 이어 폐회식으로 행사를 마무리했다. 재외동포재단은 대회 기간 온라인 네트워킹 라운지, 차세대단체를 소개하는 아카이브 등 상시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참가자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 서로 간의 네트워크 강화 및 한민족 평화공동체 구축을 약속했다.

참가자 김해범은 이번 대회를 통해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할지 깨닫고, 이를 위한 실천 방법을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폐회식에서 김 이사장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고 겸허한 자세로 베푸는 자세를 갖추길 바라며 코리아로서 전 세계를 위한 일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 해외 한상기업과 K-푸드 수출확대 간담회 개최

재외동포재단은 9월 10일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및 주요 수출국 한상(韓商)기업들과 함께 농수산물식품 수출확대를 위한 온라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북미지역 20개 지역협회 총 2만여 회원을 보유한 김주한 국제한인식품주류상총연합회 회장을 비롯해 한상기업 최초로 베트남 100대 우수 브랜드에 선정된 고상구 K&K글로벌트레이딩 회장 등 5개국 6명의 한상기업 대표가 참석했다.

간담회는 국가별 현지 동향 및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수출확대를 위한 협력과제를 발굴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으며, 각 기업 대표들은 코로나 이후 높아진 한국의 위상과 K-Food의 현지 진출을 전하고 수출확대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이번 만남을 계기로, 전 세계 식품 관련 지역별 한상분들의 네트워크를 서로 잘 활용할 수 있는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의 필요”를 강조하며, “최대한 서로



재외동포재단과 농수산물유통공사가 개최한 K-푸드 수출확대 간담회에 온라인으로 참석한 한상들.

자주 뵈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제19차 세계한상대회에서 국내 유수의 생산자들과 비즈니스 협력의 기회를 주 선할 것이므로 우수한 한상들이 바이어로서 많이 참여해 주길 당부했다.

## 재외동포와 함께하는 ‘코리안 페스티벌’ 개최

재외동포재단은 세계한인의 날 15주년을 맞아 10월 8일 ‘2021 코리안 페스티벌: 재외동포와 함께하는 가요제’을 개최했다.

전 세계 곳곳에서 한인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살아가는 재외동포들이 노래 경연을 펼치는 축제로, 전 세대를 아우르는 재외동포 10여 팀이 흥겨운 무대를 펼쳐다.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19로 모두가 지친 상황이지만, 흥과 끼로 뭉친 우리 코리안들이 마음껏 재능을 펼칠 수 있는 ‘코리안 페스티벌’을 통해서, 우리 내국민과 동포 모두가 함께 웃고 즐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선영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가수 김조한, 이영현, 조권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며 가수 크라잉넛, 거미의 축하 무대가 펼쳐



쳤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오는 9월 29일 무관중 녹화로 진행됐고 10월 8일 밤 11시부터 MBN을 통해 방송됐다. [▶](#)





## 고려인, 카레이츠 100년을 거슬러 만난 고려인 김진석 / 큐리어스

1937년 연해주를 떠나 중앙아시아로 간 이들의 현재 얼굴을 담은 사진집이 출간되었다. '길위의 사진가' 김진석 작가는 고려인의 이동경로를 따라 걸으며,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의 살고 있는 고려인의 일상을 담았다. 1937년 강제이주로 흩어져 현재까지 살고 있는 고려인의 숫자는 대략 80만 명이다. 현지에 뿌리를 내려가며 현재 5세대까지 이르게 되었다. 작가는 1세대의 유산인 독립운동가의 후손부터 패션모델, 교수에 이르기까지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고려인들을 보여 준다.

## 동학소년과 녹두꽃 이마리 / 행복한 나무

일제강점기에 연구용으로 진도에서 일본으로 반출된 유골에서 동학혁명의 발자취를 확인한다는 이야기이다. 일본 홋카이도 대학에서 발견된 '동농조수 수급(동학 농민 조선 수괴의 머리)'라는 유골은 동학혁명과 우금치 전쟁을 겪고 일본 땅까지 가게 된 안타까운 역사의 산물이었다. 이 역사적 소재를 통하여 작가는 아이들의 눈으로 읽을 수 있는 동학농민혁명과 우금치 전투의 이야기를 펴냈다. 작가는 호주에서 한인이동작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호주의 자연과 모국의 역사 등을 소재로 아동 문학을 펴내고 있다.



## 꽃은 향기로워도 김만리 / 품

일본 사회에서 자이치로 중증장애를 가지고 살아온 이의 에세이집이 발간되었다. 작가는 3세대 소아마비 후유증으로 장애인이 되어 21세 때부터 가족이 아닌 타인의 도움을 받으며 자립생활을 해왔다. 작가는 일본 사회에서 장애인 해방운동을 펼치고 장애인으로 구성된 극단을 만들어 70여 편의 극본 집필과 연출을 하며, 직접 무대에 서며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무대 위에서 빛을 받아 아름다운 작품을 보여주기까지, 작가는 장애와 국가로 가려진 본연의 자신을 찾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왔다. 자신의 의지에 따라 일상에서 자립을 하며 더불어 살고자 했던 작가의 분투기를 읽어보자.

### 9월의 재외동포재단 임원 동성

#### 김성곤 이사장

- 9월 6일: 입양 동포단체와의 '찾동' 행사 참석
- 9월 7~10일: 세계한인차세대대회 주관
- 9월 13일: 세계한인정치인협의회 실행위원회 회의
- 9월 14일: 세계지식포럼 참가
- 9월 17일: YBLN 개회식 화상 참석
- 9월 23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업무 협의
- 9월 29일: 코리안페스티벌 본선 녹화
- 9월 30일: 세계한인정치인협의회 회의 화상 참석



# 750만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이 하나로 통하는 첫 번째 온라인 세상 코리아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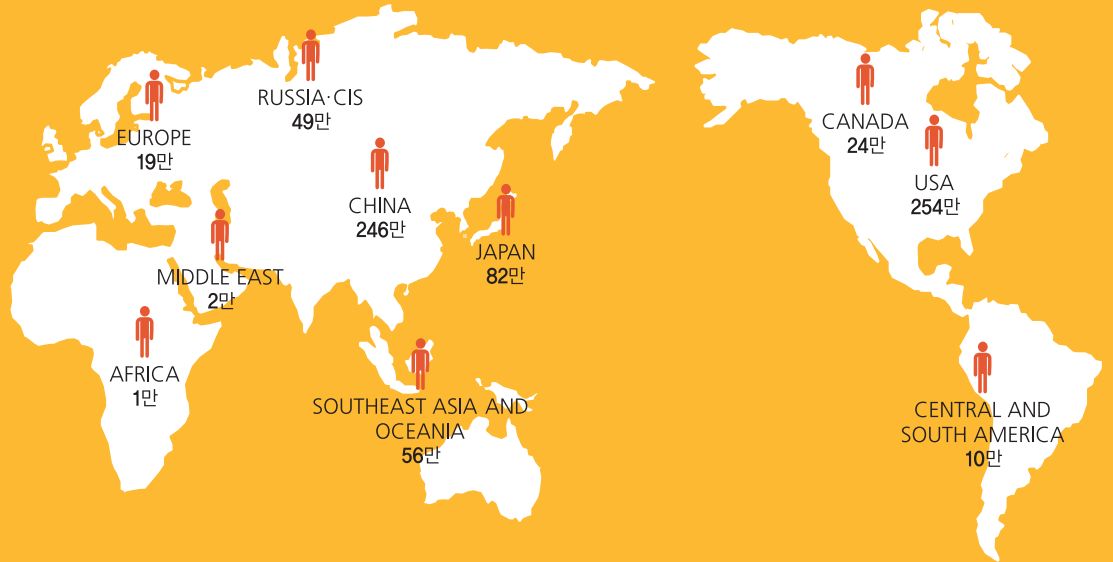
코리아넷 회원에 가입하시면 재외동포 민원, 재외동포 단체,  
재단 지원사업 등 관련 정보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  
민원

  
재외동포  
지원 사업

  
단체 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지원

  
재외동포  
뉴스



세계 시민과 함께

한민족 공동체를  
구현하는

글로벌 플랫폼 기관

재외동포재단, 세계 750만 재외동포와 함께 밝은 내일을 만들어 갑니다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에서 민족정체성을 유지하고, 스스로의 권익과 지위를 향상시키며, 역량을 결집하여 모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